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 넘어 ‘규제 방식 성찰’에 집중”



오늘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에 부처 출범 10주년을 맞는 중기부를 이끌 수 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소영 후보자가 국회 청문 문턱을 무난하게 넘어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출범 이후 7번째, 여성으로서 5번째 중기부 장관이 된다. 또 장관 임명 직전 직업 기준으로 따지면 정치인 출신으로 5번째 중기부 장관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가 두 번째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한 직후 언론에 처음 밝힌 소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넘어 ‘규제 개혁 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방식 자체를 성찰하는데 역량과 추진력을 쏟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후보자 “불합리 규제 해소 규제 부처 장관 설득 역할도 할 것”

코스닥 승강제엔 속도 조절 견해
중소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등
법정부 통합관리 체계 필요 의견

붓겠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정책 지원 영역인 스타트업, 벤처기업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 그리고 이해 당사자간 충돌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타다’와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앞서 벤처기업계를 만난 자리에서도 “중기부는 규제 부처는 아니고 기업 활동의 애로가 되고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는 규제는 대부분 다른 부처들이 가지고 있다”면서 “중기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게 두진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장관이 된다면 타 부처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일을 중기부의 일이라고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규제 부처 장관들과 토론하고 설득하는 역할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자는 코스닥시장을 기업군별로 구분하는 승강제의 개편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시기종애와 실적 중심의 획일적인 구분은 기업 간 서열화와 낙인효과를 낳고 장기 R&D가 필요한 AI·답테크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있다”고 전하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벤처투자 회수시장과 관련해 기업공개(IPO)에 편중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인수합병(M&A)·세컨더리펀드를 확대하고 M&A 플랫폼 지원과 대중견기업의 벤처 인수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술탈취 예방을 위해 거래 교섭 단계에서 비밀유지계약(NDA)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준 준비 기간 중소기업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를 잇따라 방문하며 현장 소통에도 집중했다.

중기중앙회는 이 후보자에게 ▲스타트업의 신산업·신기술 육성 ▲탄소중립·ESG 중소기업 대응력 강화 ▲중소기업 AI 확산 지원 ▲중소기업 글로벌 영토 확장 ▲온·오프라인 유통과 소상공인 공정거래환경 조성 ▲정년연장 합리적 도입 및 주52시간제 완화 등 6대 현안과제를 건의했다.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시드, 5급 3특 성장 엔진 전략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더 구체화하고 명시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의 해묵은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견해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력 도입부터 체류·취업·정주까지 법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 양성화보다 현장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선발·도입하고 비숙련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 외국인력의 장기 체류·취업과 정주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HS효성, 울산에 실리콘 음극재 공장 신설

2030년까지 3단계 걸쳐 체제 구축
총 1.2조 투자… 울산 시민 우선 채용

HS효성에너지솔루션코리아가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울산에 실리콘 음극재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차세대 배터리 소재 시장 공략에 나선다.

HS효성에너지솔루션코리아는 울산시청에서 울산시와 실리콘 음극재 생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2030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실리콘 음극재 대량생산 체제를 갖춘다.

우선 3000억원을 투입해 2028년 1분기까지 연산 5000톤 규모의 실리콘 음극재 생산공장(MPK-1)을 건립한다. 이후 2·3

단계 투자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생산능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실리콘 음극재는 기존 흑연 음극재보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하고 급속 충전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소재다.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고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배터리업계의 주요 기술 개발 분야로 꼽힌다.

HS효성에너지솔루션코리아는 HS효성그룹이 실리콘 음극재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벨기에 소재기업 유니코어(Umicore)와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이번 투자는 HS효성그룹이 계열분리 이후 추진하는 첫 신사업이다.

공장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는 울산 시민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인

허가를 비롯한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이거수 HS효성에너지솔루션코리아 대표는 “이번 투자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 소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조선·방위 산업 등 주요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라며 “특히 효성그룹의 발상지인 울산을 첫 번째 투자지로 선택한 만큼, 첨단 생산기지 재편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이번 협약이 울산의 차세대 배터리 핵심소재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가온전선 기자 wkh@

가온전선, 수상태양광에 170억 규모 ACF 케이블 공급

첫 수상태양광 프로젝트 수주

가온전선이 육상태양광 사업에서 검증한 케이블 기술을 수상태양광 분야에 처음 적용해 신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 사업을 확대한다.

가온전선은 석문호와 새만금 햇빛나눔 등 국내 주요 수상태양광 프로젝트에 약 170억원 규모의 ACF 케이블을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가온전선의 첫 수상태양광 프로젝트 수주이자 ACF 케이블을 수상태양광에 적용하는 첫 사례다. 2023년 비금도 육상태양광 프로젝트에 제품을 공급한 데 이어 적용 분야를 수상태양광으로 넓혔다.

ACF는 전력 케이블 외부에 보호용 알루미늄 외장을 적용한 배관 일체형 케이블이다. 별도의 배관 없이 포설할 수 있어



가온전선 군포 사업장 전경.

/가온전선

시공 공정을 줄이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가온전선은 수상태양광 발전단지의 대형화에 대응해 대규모·장거리 ACF 케이블을 개발했다. 수면 위에서 시공하는 수상태양광의 특성을 고려해 시공 편의성과 유지보수 효율을 높였다.

국내에서는 대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이 추진되면서 관련 전력 인프라 수요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새만금에 2030년까지 총 1.2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가온전선은 이번 공급 실적을 기반으로 후속 수상태양광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와 태양광, 발전소 등 대규모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특수 케이블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원관희 기자

중기부, ‘공공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지원

내달 6일까지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스타트업의 기술검증(PoC)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10월6일까지 모집한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방산(국방부·방위사업청)·기후테크(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국가 전략산업 분야 개방형 혁신 수요를 발굴하고 수요기업이 보유한 인프라를 연계해 스타트업의 기술검증(PoC)과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은 공공데이터를 스타트업에 개방하고 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 협업을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8월 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 협업 과제를 모집하고 공공기관 과제 제안 방식(Top-Down)으로 18개 기관의 22개 과제를 선정했다.

과제 가운데 국가데이터처가 제안한 과제는 축제·명절 등 행사기간 주요 지역의 인구밀집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등 데이터에 기반한 국민안전 정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공공기관 제안(Top-Down) 과제를 해결할 창업기업 2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뽑힌 스타트업에는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검증(PoC)·시제품 제작 등 협업 사업화 자금(최대 1억 원) 및 기술개발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미공개 데이터를 활용하길 원하는 스타트업 제안 방식은 스타트업 63개사가 신청해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와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공공기관 제안 방식과 같은 협업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기술개발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귀뚜라미보일러, AI 적용 ‘카본매트’ 선포

개인별 수면온도·습관 맞춰 난방 조절

귀뚜라미보일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카본매트를 추가로 선보이며 시장을 추가 공략한다.

귀뚜라미는 ‘AI 수면 제어 시스템’과 ‘AI 적정 온도 시스템’을 탑재해 개인별 수면온도와 습관에 맞춰 난방을 자동 조절하는 ‘2027년형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 AI 온돌’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27년형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 AI 온돌의 핵심인 ‘AI 모드’는 사용자의 수면 시 적정온도와 사용시간 그리고 자리아탈 여부를 판단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난방한

경을 제공한다.

스마트 리모컨 중앙의 ‘AI 버튼’을 3초간 누르면 AI모드가 작동한다. AI모드의 첫 번째 주요 기능인 ‘AI 수면 제어 시스템’은 사용자가 잠잘 때 선호하는 적정 온도와 사용시간을 판단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수면패턴을 분석한다.

난방매트의 기본인 열선에는 특허받은 ‘이라미드 카본열선’을 적용했다. 160W 저전력으로 하루 8시간씩 한 달간 사용해도 월 전기료가 6900원대이며, 귀뚜라미의 독자적인 난방제어 기능인 ‘예코모드’를 사용하면 일반 난방 대비 전력 사용량을 13% 추가 절감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